춘천 성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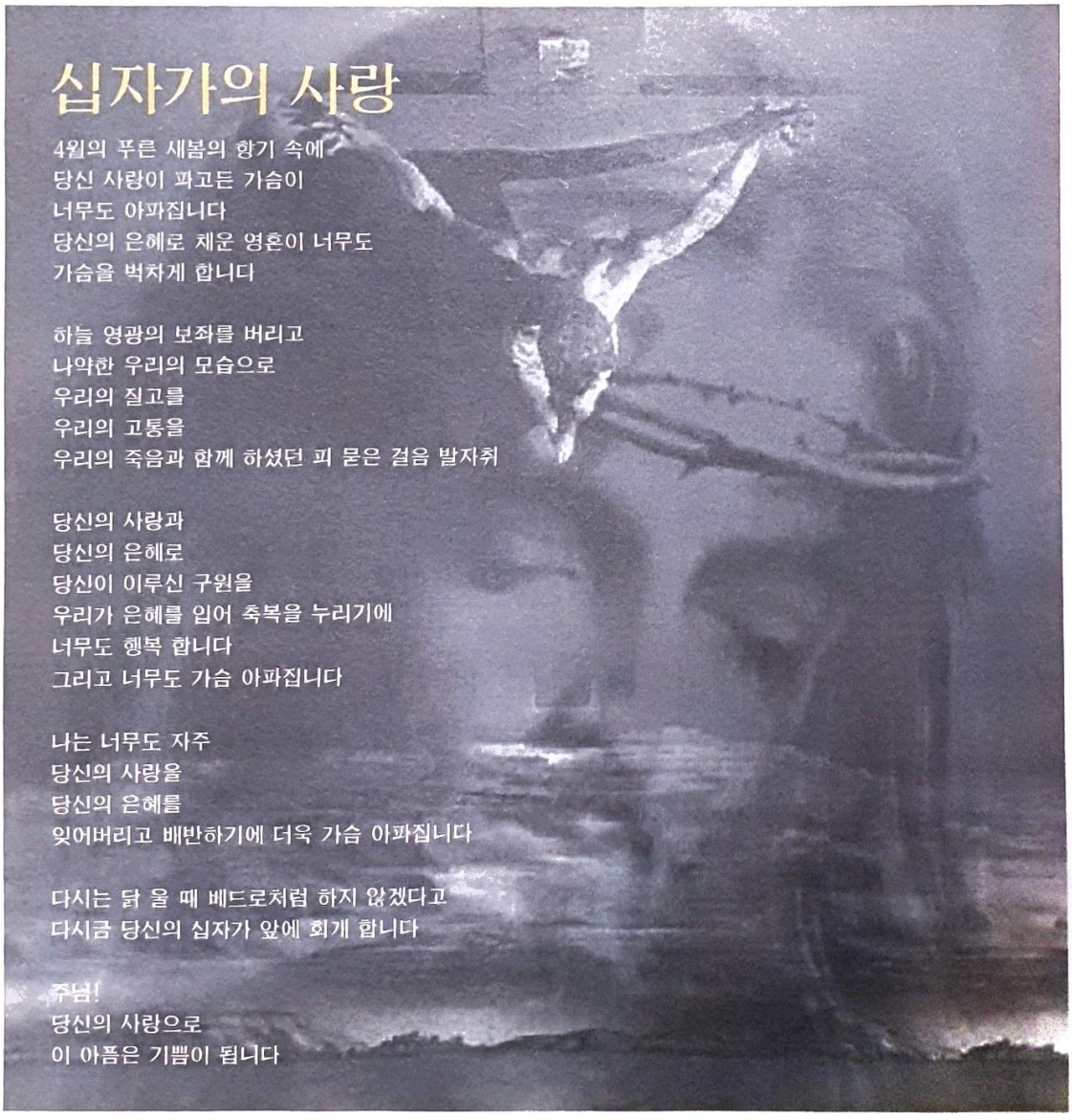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이 원 호

2. Fire again 2007 십자가 평화대행진
5. 2007통일한국 춘천대회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
6.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효신교회
9. 다이어트를 위한 수칙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4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1호



십자가의 사랑

4월의 푸른 새봄의 향기 속에
당신 사랑이 파고든 가슴이
너무도 아파집니다
당신의 은혜로 채운 영혼이 너무도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셨던 피 묻은 걸음 발자취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축복을 누리기에
너무도 행복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가슴 아파집니다

나는 너무도 자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기에 더욱 가슴 아파집니다

다시는 닭 울 때 베드로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당신의 십자가 앞에 회개 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픔은 기쁨이 됩니다

이달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십자가 평화대행진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며, 희망을 잃고 있는 춘천의 모든 시민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의 축복이 임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특히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 강원도와 춘천의 비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지며, 춘천을 믿음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비전들이 일어나고 세워져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위해
이번에 시작되는 'Fire 2007 춘천 기도행진'을 통해 춘천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이 타오르며 특히 청소년들 속에 헌신의 불이 타오르도록.

· 7월에 열리는 '성서한국 통일대회'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를 주제로 강원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200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관계자들도 공식 초청해 공동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독청년들에게 통일의 공감대가 적극 형성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객·을·최·고·로·생·각·하·는·상·가
춘천지하상가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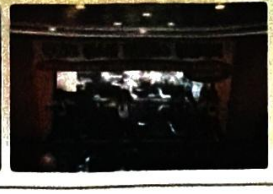
TEL : 033)244-7963
FAX : 033)242-7963

※ 모든 구매고객께 주차할인권을 증정해드립니다.
※ 지하상가는 두번째주 화요일 정기휴무합니다.
※ 352개의 점포주는 고객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춘천지하상가운영위원회 회장 윤 헌 영 드림







Fire again 2007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

이 주 호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소양제일성결교회)



십자가 평화대행진이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매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십자가 평화대행진은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춘천을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삼아 왔다. 해가 더해가면서 이제는 춘천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춘천의 소중한 기독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이 행사를 주관하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춘천시와 경찰서, 그리고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면을 통하여 모든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촛불 행진"과 춘천의 영적 부흥을 위한 "fire again 2007 봉의산 성령집회"

제5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십자가 평화대행진은 에년의 경험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는 2007년의 의미를 특별하게 가미하여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기획하였다.

이전의 행사와 다른 면이 있다면 우선 제4회 십자가 평화대행진까지는 인원등원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 오후에 십자가 행진을 해왔다. 자연히 십자가의 고난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에도 의미를 두어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성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 평화대행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거기에 행사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어두움을 밝히는 촛불 행진은 십자가의 영광을 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행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진정한 중보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봉의산 시민공원에서 이루어지는 "fire again 2007 봉의산 성령집회"이다. 온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춘천의 상징

4월 6일 오후 7시,
성 금요일 십자가의 사랑을 춘천에...
공지천 시민공원에서 봉의산까지 행진

으로 자리 잡고 있는 봉의산에서 춘천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다. 십자가 평화대행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fire again 2007 봉의산 성령집회"는 1907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보았던 성령의 임재와 그 뜨거운 역사를 춘천에 재현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성령집회는 십자가 평화대행진의 마무리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봉의산 성령집회로 정례화하고자 한다. 춘천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시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봉의산 성령 집회를 통하여 오래전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늘의 목회자들에 이르는 영적 통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춘천의 어두움의 세력과, 거기에 눌려 뜨거움과 응집력을 상실한 교회연합,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와 갈등,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세속문화 등을 몰아내고자 한다.

이 모든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천이 모여 단번에 이루어 질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기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일이며, 앞으로 이어질 성령의 지속적인 사모함과 부르짖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fire again 2007",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춘천 성시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를 보았다. 성 금요일 행사가게 교회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기도 하고, 개 교회에서 열리는 수요일 집회와 금요일 소그룹 모임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주일 등 많은 모임들이 있어 성 금요일에 진행될 이번 행사의 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합사역에 헌신적 열정을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에 소중한 의미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2007년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 대행진..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성령의 도시 춘천"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의 땅 밟기가 되길 소망한다. 아울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 행진 대열에 합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나누기 원하는 곳
♣ 온라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으로 더 편리하게!!
♣ 대출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낮은 금리로!!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현진에버빌 2차 옆)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선교세계관학교(MPS)

밀알처럼 섬기는 민 경 원 안수집사 (순복음춘천교회,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선교세계관학교(Mission Perspectives School)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정평이 있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가 이끌어 온 WMP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 선교 최전방의 선교사, 선교 지도자의 훈련과 지역 교회의 선교동원에 공헌해왔다. 한국에서도 수년전부터 여러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적 관점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도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9월 춘천비하르선교협의회가 베드로선교센터에서 1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2기를 진행하여 현재 매주 토요일 오후에 12기가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MPS가 춘천에 정착하기까지 조은제 목사(현 일본선교사)와 여러 섬김이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다.

MPS를 섬기면서 감동받아 섬김이로 헌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리더로...

민경원 집사가 이 훈련을 받게 된 때는 지난 2003년 봄학기(MPS4기)에서였다. MPS의 좋은 장점 중의 하나는 훈련받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기수를 섬긴다는 점이다. 사실,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을 때보다 섬김이로 섬기며 강의를 다시 듣게 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섬기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다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선교관을 정립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최고의 감동이라고 한다. 더욱이 선교훈련이지만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이 훈련을 통해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기도 한다. 민 집사도 6기 때부터 조장으로 섬기어 오다가 큰 감동을 받아 2005년 9월부터는,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어오던 조은제 목사가 일본 선교사로 떠나게 되면서부터 섬김이 대표를 맡아 MPS를 섬기게 되었다.

매주 월요일 중보기도는 능력의 원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섬김이들의 헌신

12주간의 MPS모임이 진행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기도모임은 여러 난관들을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한다. 매주 10여명(학기 중에는 20여명)이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준비과정에 어려워보이던 문제들도 막상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다고 한다.

MPS가 이렇게 춘천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매기수마다 섬겨주시는 섬김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기를 수료한 후에 계속 섬겨주시는 이강진 집사, 그리고 이수란 전도사, 기도모임에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이영렵 목사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 바로 현재의 MPS를 있게 했다.

지난 12기 동안 600여명이 훈련받아
MPS를 통해 춘천 땅에 선교의 바람이 일도록

현재 약 6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수료생 중에는 여러 명의 평신도 선교사가 나와서 현재 사역중이거나 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의 성도들에 비해 훈련받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앞으로 아직 이 훈련을 접해보지 못한 많은 교우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묵묵히 섬김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기수를 준비할 때마다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역교회에서는 쉽게 집하지 못한다. 더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훈련받은 분들의 재충전을 위해 선교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춘천 땅에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문의: 253-3399 H.P 019-9903-1148, 011-362-0926 / www.mpscc.net)



아버지가 살아야 목회자가 산다

강원2기(춘천10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김 요 한 목사[40세, 힐송교회(후평2동) 담임목사/가족: 우선녀 사모(40세), 권능, 찬능]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다. 가정의 붕괴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회복이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첫 걸음이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지름길이다. 가정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아버지의 형상이 훼손되어 가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미 아버지상을 회복하고자 춘천에서 10기차가 진행되어 왔다. 춘천 10기차(목회자 2기)인 강원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가산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기수에는 40여명의 목회자 아버지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아버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금번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버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김요한 목사를 만나보았다.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젖어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아버지학교에 스텝으로 섬기는 이종인 형제의 권유로 참여할 때만해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다소 권위적이었던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라고 짧게 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김요한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목회자요, 아버지 같이 보였다.

인천이 고향인 김 목사는 춘천에서 목회하면서 딱히 아는 지인도 없고, 시간의 이유가 있어서 다른 동역자들과 교제해 볼 심산으로 아버지학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권위적인 한국의 남편상,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던 김 목사에게는 자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나 허그하는 것이 여간 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내도 자녀도 다 내 부하라고 생각하며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하나님은 첫 주부터 상처를 다루시기 시작했다.

김 목사는 뜻밖에도 하기 어려운 고백을 털어놓았다. 어딘가엔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본적도 없고, 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만 구지 찾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어 놓은 상처를 첫 주부터 들쳐 내기 시작하셨다.

아버지께 대하여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김 목사가 그 편지를 낭독하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김 목사의 마음에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셨다. 상처를 들추어내시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가히 거대한 변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은 신호에 불과했다. 아내와 단 둘이 데이트하기, 자녀와 데이트하기는 김 목사의 어색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아내의 사랑스런 20가지 이유, 자녀가 사랑스런 20가지 이유 등을 쓰려고 할 때 그런 느낌이 오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던 수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사랑스러운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슴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지만 아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녀가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단다.

이번 계기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상한 자를 보듬어 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김 목사는 아버지학교를 마치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해 더 봉사하며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김 목사의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지학교동문 부회장으로 섬기게 하셨다. 앞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더욱 더 성숙한 아버지로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처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치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목회자가 먼저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아버지학교에 문을 두드리라고 전한다. (문의 : 운영위원장 채병조 011-590-0855)





취재 : 최영조 사진 : 김미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성지순례 II (이스라엘/요르단)

춘천제일장로교회 한 남 수 장로

순례 다섯째 날 : 여리고성, 감람산

이호수아가 믿음으로 무너트린 '여리고 성'에 도착. 한창 고증을 통해 복원 개발 중인 현장에서 옛날의 함성을 그려본다. 여리고 성 앞에서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 이라고 한다. 여리고 성을 돌아 나오니 1초에 2톤씩 물이 나온다는 '엘리사의 샘'이 있었고,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삭개오의 뽕나무' 가 큰 도로 옆에 있다. 뽕나무라기보다는 몇 백 년 묻은 고목나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웬 뽕나무가 이렇게 큰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힘들게 뽕나무에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이 떠오른다.

멋사다로 가는 도중 '사해'에 들려 수영(?)을 즐겼다. 몸이 둥둥 물위에 뜨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사해는 해수면 이하 약 400m에 위치한 독특한 바다로 다른 일반 바다보다 5배 이상 7배의 미네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중해 보다 10배나 많은 염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장차 파괴될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우신 것을 기념하여 감람산 기슭에 세운 '예수눈물교회',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후 승천하신 곳을 기념한 '예수승천기념교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떰방울이 피같이 흐르는 결사적인 기도를 한 자리에 세워진 '만국교회(겟세마네교회)',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게스네마네라는 정원의 감람나무, 겟세마네 등산 키드론 골짜기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돌무덤을 본 후, 베들레헴을 향했다.

베들레헴은 히브어로 "빵의 집"을 의미하며 룻기에 처음 등장한다. 유대사막 끝에 위치하고 있는 베들레헴, 인구 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남아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 예수탄생지역으로 기억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랬다는 의미에서 붙어진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7세기경부터 기도의 구심처로 삼았고, 해마다 아브월 9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서쪽 벽에 모여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며 통곡하였다고 한다. 예루살렘의 황금돔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찬란하게 눈에 띄는 상징적인 도시의 명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깊이 남은 곳, 바로 '비아돌로로사' 라고 하는 14개 지점의 십자가의 길이다. 모형 십자가를 빌려서 교대로 짊어지고 14개 지점의 십자가 길: (1)빌라도에게 재판받던 곳 (2)사형언도를 받고 조롱당하며 채찍에 맞은 곳 (3)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넘어진 곳 (4)마라아를 만난 곳 (5)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 (6)베로니카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를 닦은 곳 (7)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넘어진 곳 (8)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울라고 한 곳 (9)십자가를 진 예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진 곳 (10)예수께서 옷 벗김을 당한 곳 (11)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 (12)십자가에 달려 운명한 곳 (13)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곳 (14)죽은 예수를 장사지낸 곳(무덤),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통이 마음 깊이 느껴져 흰전 내내 눈물을 흘렸다.

순례 일곱째 날 : 가이사랴 빌립보, 요르단

예루살렘 북쪽 헬몬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었던 이곳은 물이 풍부하여 사막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푸포로 장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솟아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신 가버나움,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셨던 붕사의 장소였던 갈릴리 바다 해변을 벌리하고 요르단으로 향했다.

요르단은 아라비아반도의 북서부, 지중해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등쪽으로는 인류문명발생지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나일강 이집트문명의 주요 통로에 있다. 크기는 우리나라 정도로 인구는 약 500만 명이고,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 90%나 차지하고 있으며 회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순례 여덟째 날: 에돔왕국 페트라

왕의 대로를 따라 헤스본 아르논 골짜기 베셀르우벤지파의 도피성을 순례한 후, 에돔왕국이 있던 페트라를 향하여 여정을 재촉하였다. 사해 등남쪽 5km로 지점의 작은 분지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던 페트라는 바위를 뜻하는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가 많은 산들은 붉은색이 아름답게 얼룩져 있는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순례 아홉째 날: 요단강 등편 베다니

요단강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곳을 기념하여 요르단 쪽 베다니에 기념교회가 서 있었으며,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개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엘리야가 승천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요단강을 조망하면서 험준한 협곡을 따라 느보산으로 올랐다.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 하구 등쪽의 아바림 산맥에 위치한 느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땅을 바라보라고 지시받은 산이며,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은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산꼭대기에는 모세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교회 밖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여정 중에 있었던 놋뱀사건을 기억케 하는 놋뱀이 세워져 있다.

느보산을 내려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던 성읍 마다바를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주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이 되셨던 그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새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깨닫습니다.

순례 여섯째 날 : 십자가의 길

통곡의 벽은 유대인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요, 성지중에 성지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다.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고 나라 잃은 슬픔을 이곳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만클리닉 · 소아비만 · 만성피로상담
고석연 가정의학과 033-254-0121
진료/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외과
검사/종/목
예방접종, X-ray검사, 고지혈증 검사, 심전도 검사, 뇨분석검사, 당뇨 · 혈당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폐기능 검사, 물리치료
진료/시/간
월~금 : 9:00~6:30 (점심시간 : 1시~2시)
토 : 9:00~4:00 주일은 쉽니다.
춘천시 후평동 한신아파트 건너편



이 땅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2007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 -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

2007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기독청년 학생을 초청하여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대회"를 개최한다.

초청의 글

하나님께서 지난 80년대부터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주신 한국의 꿈

이문식 목사 (2007 주강사, 산울교회)



꿈은 흔히 꾸면 '꿈'이지만, 뜻을 같이 한 이들이 함께 꿈꾸면 비전(Vision)이 되고, 공동체가 꿈꾸면 운동(Movement)이 되고, 백성이 꿈꾸면 역사(History)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0년대에 한국의 청년 복음주의자들에게 주신 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Vision)입니다. 저는 이번 '2007년 성서한국대회'가 우리 시대에 주신 이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헌신시키는 촉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주강사로서 먼저, 통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복음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각성하고, 둘째,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신앙에 기초한 총체적 운동력을 회복함으로써 남남갈등과 남북대립을 넘어서는 한민족 공동체 회복의 길을 모색하며, 셋째,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소명 앞에서 다시 헌신하는 우리 청년학생 그리스도인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새삼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이자 21세기 평화운동의 거룩한 진원지가 될 이번 통일한국대회에 한국 복음주의 진영의 동지적 그리스도인 및 하나님나라의 강호제현(江湖才賢)들을 삼가 초대하는 바입니다.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

◆일시: 2007년 7월 24일~28일(4박5일)
◆장소: 춘천 강원대 캠퍼스(숙소는 강원대 1,000명; 한림대 540명)
◆주최: 성서한국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청년포럼, 강원대 교수선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통일 선교사란?

성서한국이 합의해낸 한반도 통일 청사진에 동의하고, 성서한국이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그리스도인이면, 성서한국의 이름으로 통일 선교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데 기획단 차원에서는 대체로 동의가 되었다.

<주요선택 강의 해설>

기초분야 선택강좌 : 3일 연속

1. 통일주제 성경공부반
2.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와 통일운동사(양진일 목사)
3. 북한이해반(김병로 교수)

연구분야 선택강좌 (선택참여)

: 3일 - 32강좌(하루 평균 11강좌)

1. 교회와 신학
2. 인문(역사, 철학, 언어)
3. 정치/국제관계/군사
4. 공공행정(거버넌스, 중앙정부, 지방정부)
5. 경제/산업(거시경제, 산업별 현황)
6. 교육
7. 법률
8. 과학기술(기초기술, 공공기술, 농림 수산)
9. 사회복지(보건, 의료, 여성, 청소년, 노인)
10. 문화/예술(음악, 미술, 문학, 체육, 미디어)
11. 징직과 신뢰
12. 비영리단체의 경영혁신
13. 인터넷을 통한 반전평화운동 사례소개

실천분야 강의 및 워크샵

1. 남한내 새터민 정착(여명학교)
2. 북한인권과 재중 탈북자(통일사랑방)
3. NGO와 통일운동(남북나눔운동)
4. 국제협력(남북나눔평화연구원, 리더쉽코리아)
5. 북한학/통일학 연구(남북나눔평화연구원, 기독통일학회)
6. 남북경협과 북한개발(남북나눔평화연구원, 리더쉽코리아)
7. 통일교육 실천사례(통일교육문화원, 좋은교사)
8. IT와 북한(연변과기대)
9. 북한선교와 북한교회재건(한국기독통일포럼)
10. 전쟁과 평화(개척자들)
11. 통일한국의 국가경영 전략(리더쉽코리아, 기독경영연구원)
12. 오감으로 느끼는 통일(기청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자료제공 : 성서한국]

2007성서한국영역별대회 일정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28일(토)
오 전		새벽기도(숙소별 모임) 주제강의1 (이문식 목사) 선택강의 (기초2개, 전문연구12)	새벽기도(숙소별 모임) 주제강의2 (이문식 목사) 선택강의 (기초3개, 전문연구12개)	새벽기도(숙소별 모임) 주제강의3 (이문식 목사) 선택강의 (기초3개, 전문연구12개)	각 참여단체나 교회의 개별시간 장소와 참석은 제공
오 후	등록및명찰배정 본 대회의 조직위원과 강사진 리셉션과 조식 (오후 5:00-7:00	통일시대 대회비당① 실천영역강의 및 워크샵	통일박람회 및 이외활동② (통일카드, 두진 공동벤) 실천영역강의 및 워크샵	통일박람회 및 이외활동③ (통일축 구대회): 지원시 각 참당 통일참 책 비교도 론	
저 녁	통일신 교사로 헌신과 결단 -홍정길 목사- (2시간) 기도회(40분)	허문영 전체강의 (2시간) 기도회(40분)	통일실천기 피디영 목사(1시간30분) 기도회(40분) 전문영역별 모임	통일신 교사로의 헌신과 결단 -김동호 목사- 성서한국이 합의한 통일 청사진 설명 -기도회-	

등록신청 3월 개시, 선착순 2000명

등록안내(자료집과 복음과복음과상황 6개월 구독권 제공)

등록비 (4박5일)	3~4월	5~6월	현장등록
개인	90,000원	100,000원	110,000원
단체 (2인이상	1인당 만원씩 할인		

(호남지역 참가자 1인당 만원 할인)

통일나눔터

21세기 통일한국운동을 추구하며,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통일나눔터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복음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기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모임장소: 거성침례교회
(011-366-8903, 017-379-0191)

남춘천순복음교회에서는
***신앙회복(영적회복)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성경적인 신앙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주 제: "회복으로 가는 길"(닉웨렌 목사 저서)
- 장 소: 남춘천순복음교회
- 강 사: 오 의 석 목사
- 모임날짜: 2007년 5월 3일(매주목요일) 오전 11시
- 교회전화: 033)263-4321, 핸드폰 016-349-2743
- 교회위치: 퇴계동 한주금호아파트 앞 퇴계상가 401호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효신교회(이상욱 목사)편입니다



1959년 봄, 빙효정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역사를 이어온 효신교회. 지난 2004년 2월에 이상욱 목사가 부임한 이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자"는 꿈을 가지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이상욱 목사

3년 전 이상욱 목사가 효신교회에 부임한 이래 교회는 지금 큰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 긍정적 변화의 핵심에는 이 목사가 있다. 이 목사는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열 살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온 이래 남미 선교사로 활동했던 몇 년의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다. 이 목사의 삶의 위기는 열두 살 경에 찾아온다. 어느 날 피를 토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폐결핵이 깊이 진행된 상태. 한번 각혈을 시작하면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청년 이상욱을 만나주신다. 새벽녘 교회당에서 새벽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열여덟 살 무렵이었다고 이 목사는 회상한다.

서울 신일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목사는 27세에 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병마에서 놓임 받기까지 15년의 투병생활은 주님을 고통 중에 깊이 알아가는 계기와 장래를 위한 연단의 시기였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 주의 종이 된 이 목사는 선교에 대한 남다른 부르심을 느끼며 1997년부터 4년간 남미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영혼들과 특히 6개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사역을 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이 목사는 말한다.

효신교회

미국 북장로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효신교회는 일찍이 소명을 받은 신학생들의 신학교육과 대안학교 교육에 힘을 써 최근까지 유수한 주의 일군들과 건강한 사회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일조(一助)하였다. 하지만 지난 5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더 위대한 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던 아쉬움이 있던 터에 지난 2004년 봄, 이 목사의 부임으로 말미암아 고목나무에 꽃이 활짝 피는 계기가 마련된다.

지금 효신교회는 전형적인 전통 교회에서 셀(Cell)교회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구역예배를 '구역' 개념에서 '목장' 개념으로, 올해는 '목장' 개념에서 '셀'로 전환하였다. 효신교회는 전통교회의 장점 속에서 현대적 셀 교회의 장점을 이식하고 있는 중이다. 이 목사는 '셀 교회'와 '셀을 가진 교회'를 구분한다. 여기서 셀 교회란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셀의 목자가 영적 아비 혹은 작은 목사가 되어 "교회안의 작은 교회"(church in Church)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목사는 셀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셀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셀 모임은 매주 20여개가 열린다. 셀 모임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선교비와 셀 사역비로 편성된다. 필리핀 이진호 선교사를 돕는 것을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미국, 이란 등 해외 선교지와 농아인 교회, 독거노인, 기쁨의 집 등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향한 선교와 지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 작년 대비 선교비가 30-40% 가 향상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선교에 대한 교우들의 해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셀교회로 의 전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2007년도에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표어로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날개를 사용하여 하늘을 웅비(雄飛)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견고한 진을 정복하는 40일 전투' 가운데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견고한 진을 이해하기, 정탐하기, 승리자 마인드 무장하기, 필승을 위한 전략세우기, 견고한 진을 공격하기, 승리의 라이프스타일 세우기'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탄에 대항하여 마치 골리앗의 무찌른 다윗의 물맷돌 같은 영적 믿음의 병기를 교우들이 소유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병마와 싸우느라 젊음을 고스란히 보내던 시절, 병약한 몸을 에이는 고통이나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꿈꿀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신교회와 만나면서 잃어버린 꿈을 주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격려를 받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통해 효신교회가 구속사의 중심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며 구속사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교회. 이상욱 목사와 김혜숙 사모, 이상용 강도사, 김민철 전도사, 장로로 섬기는 엄두영, 이수길, 정용소, 이규수, 조응희, 김성일, 한계엽 장로 등 헌신된 지도자들과 교우들이 있어 행복한 교회가 바로 효신교회이다. 효신교회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더욱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안수집사 아비지학교 찬양이(스텝) (서울풍무1기수료)

주간지광고기획
DTPi 디티피아
"주님만이 내의 길이오 진리오 빛이 되시니"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8. 마무리편)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 한국동란과 기독교의 수난(受難)(1950년~1955년)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주권(主權)없이 36년간을 일본 총독부의 압제 하에 살았고,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자, 즉시 건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은 북위 38도선을 설정하여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은 공산국가가 설립되었고, 남쪽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헌법제정 공포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민주주의를 실시하였지만 좌,우익의 이념 싸움으로 국론이 분분하던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은 부산 근방까지 침공되었다. 이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3년여를 끌다가 1953년 휴전선을 삼팔선과 비슷하게 긋고 오늘날까지 휴전상태에 있다. 6.25 동란 때, 공산당의 유물사상으로 기독교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고난의 역정을 겪었으며 곳곳에 전쟁으로 교회가 불타고 십자가만이 앙상하게 솟아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 참가한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고 참전 군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단이 전후에 많이 들어왔다. 6.25당시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 등이 있었으며 그중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4.3%인 1백7만2천명이 있었다.



1952년 춘천의 모습



참전군인 과피난민

(통계자료:동아출판사발행; 세벽과사전 참조)

2. 강원도 기독교 현황(1955년~1975년)

강원도는 지형상 38도선에 근접하여 있어 6.25동란의 피해를 제일 먼저 받았고, 특히 감리교 선교 구역임으로 감리교의 피해는 매우 심하였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순교하였으며, 한편 성도들은 남부여대 하여 피난하였으나 휴전이후 점차 삶의 터를 찾아 귀향하는 피란민으로 교회가 새롭게 활기를 찾게 되었다. 강원도는 군 작전 지역으로 오래 남아 있었으므로 군부대의 협조로 교회가 많이 재건되었고, 장, 감, 성결 교단 이외의 교단들이 군인과 군목들을 통하여 유입되어 지역마다 새로운 교단의 교회가 창립되었다. 예를 들면 군인도시인 원주에는 1951년 셀튼(David.K.Shelton)군목을 통하여 침례교회가 창립되었고, 1952년 당시 최전방 고성군에 천진침례교회, 1953년 춘천침례교회가 창립되었다.



민족의 분단선 38선 표시판

사회가 안정되면서 후방에 전래되어 있던 교단과 신생교단이 전방 지역인 강원도에 교회를 창립하였는바, 강원도에는 1967년 이후 그리스도의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교단으로 창립되었다. 기타교단 교회로는 구세군 영문과 성공회, 안식교회, 천주교회가 해방 이전부터 있었으나 한국동란 후 재정비하여 강원도 곳곳에 재 창립하였다.

3. 교회 창립약사 종합정리(1980년대~현재)

강원도의 기독교, 교단별 최초의 창립교회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8년 춘천중앙감리교회, 1925년 강릉성결교회, 1933년 춘천성공회, 1935년 강릉장로교회, 1948년 춘천안식교회, 1953년 춘천침례교회, 1955년 구세군춘천영문, 1967년 그리스도의교회, 1971년 원주 지정순복음교회이며, 1970년대 이후에는 각 교단이 활발하게 전도하여 현재 강원도에는 (교회)가 있으며 춘천에는 326교회가 있다.

집필을 마무리하며

江原道 敎會 創立 略史를 이번 호로 마무리 합니다. 歷史는 과거의 기록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整理하여 두어야만 바른 記錄으로 남습니다. 이후 여건이 허락되면 다른 제목으로 江原道 基督敎會史를 정리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집필자〉

| 영혼의 양식

늘 하신 대로 가르치시더니 - 막10:1-12



이 영 규 목사
(춘천안디옥성결교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의 낯선 자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여가를 달리 보내지 않았다(행17:21). 오늘날도 아테네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딤후4:3,4).

젊은이들을 헛된 이상(vision)들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전12:1-7), 보지도 아니한 것을 억지로 주장하여(골2:18) 미혹하는 이들이 많다(벧후2:1; 요일4:1). "이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잠29:18) 참된 vision은 율법 즉 말씀이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말한다(사1:1; 욥1:1; 나1:1).

예수님은 백성이 다시 모일 때, 늘 하신 대로 다시 가르치셨다(막10:1).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살전4:1; 살전2:3-4) 말씀하셨다. 우리는 같은 것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이는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에(벧후3:1),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다(빌3:1).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온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인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라." (고후 1:13-14)

무엇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고전14:34; 막10:10). 바리새인은 시험하여 물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며(살후2:10),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기 위해서(딤후3:17) 배워야 한다. 다만,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여(눅8:18)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는(막10:15),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눅10:15).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혼문제로 시험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바리새인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 및 하나님의 왕국과 법의 모순(?)을, 제자들은 결혼 실제와 결혼생활의 실제 의를 물었다(고전6:12;10:23).

당신의 결혼생활은 화평하신가? 당신 마음의 완악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이혼한 것이 아닌가? 당신은 무엇을 묻고 싶은가? 혹 당신의 물음이 "내가 이찌합꼬?"(행2:37),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행9:6) "인가?

당신도 이 같은 자이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씻음을 받고, 거룩케 되며, 의롭게 될 수 있다(고전6:11).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전6:14). 이 분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음을 피하라(고전6:18; 잠9:10). 우리는 값으로 사신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20).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아내와 아이들과 당신 집 안에 있는 자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전10:24).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엡5:33).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요일5:12). 이 생명은 세상을 이긴다(요일5:4).

"강원 기독문화 연구소"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집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김 석 권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시 우두동 979-1 · 011-369-3536

김 석 권 장로는
※ 감리교 동부연회 실행부위원
※ 감리교춘천장로연합회 부회장
※ 동부연회 백두신교회 부회장
※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감사
※ 경인건설, 이건석재, 풍산우드 대표
로 활동하는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 태 장로
011-[illegible]-[illegibl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아픈 만큼 섬깁니다!

월드비전 리더회 회장 이 평 화 권사(중앙감리교회)편입니다.



섬기는 리더회

월드비전 리더회는 월드비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17개 교회 여선교회 회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여전도회 봉사일로 월드비전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이평화 권사는 전 월드비전 이명신 관장의 요청에 의해 리더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리더회는 월 1회 모이는 친목모임으로서 주로 10월에 열리는 월드비전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있다. 현재 4회째를 맞고 있는 경로잔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로잔치에 춘천지역 개인택시들도 한마음이 되어 봉사하고 있으며 서면 적십자회나 효자고부회 등도 이 사역을 돕고 있다. 이 행사는 각 교회 봉사자가 함께 어울려 일하기 때문에 여선교회 연합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리더회는 올해 친목모임을 넘어서기로 결의하고 주기적으로 봉사할 일들을 찾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 한분 한분을 1:1로 후원하는 일을 계획 준비 중이다.

봉사와 나누는 삶을 살기까지

이 권사의 집안은 본래 불교집안이다.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결혼하면서부터. 시댁이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이 권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부흥회에서였다. 부흥회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강하게 믿어졌다고 한다. 이 권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자 오히려 자신을 교회로 이끈 남편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주 교회에 가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이후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남편은 세상과 더 가깝게 지냈고, 15년만에야 돌아오게 되었단다. 지금은 온 가족이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권사가 초신자일 때 그녀를 인도해준 사람은 그녀가 속한 속의 속장이었다. 속장은 이 권사의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며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이 권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세례를 받고 속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 봉사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멘토가 된 분은 본 교회에 신경희 장로. 그녀는 이 권사의 신앙과 생활을 어머니처럼 챙겨주며 자문을 해주었다. 신 장로의 집을 가보면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몇 십 년도 지난 낡은 것들이란다. 신경희 장로는 큰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영적인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 장로의 삶을 보면서 이 권사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장애의 고통과 시련

중앙교회에서 사회봉사부 사역을 하게 된 이 권사는 이후 20년간 교회에서와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권사가 봉사의 삶에 더 애착을 갖게 된 계기는 교통사고로 척추수술을 하고서부터이다. 이 수술로 이 권사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몸이 불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몸소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 현재도 그녀는 힘든 일은 못하고 무거운 것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혈압이 높고 심장도 안 좋다. 게다가 갑상선 수술까지 받아 피로가 쉬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어진 것은 장애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비록 연약한 육체지만 자신의 몸이 허락될 때까지 섬기고 나누고 싶다는 이 권사.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영광 받고 계셨다.

가슴 아픈 소원

이 권사는 춘천에서 기독교 단체인 사단법인 노인복지회가 사라지게 된 것에 가슴아파한다. 뒤늦게 뛰어든 타 종교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비해 기독교 사회봉사단체들은 점점 약화되고 폐쇄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권사는 춘천시내 교회들 중 사회봉사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고 특히 노인복지에 힘쓰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왜 노인복지회가 사라지게 되었는지 지금도 의문을 풀지 못한다. 아마도 그 답은 개교회 사역은 잘하지만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은 힘들어하는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원인이 무엇이든 춘천의 온 교회가 연합하여 사회복지회를 다시 살리면 좋겠다며 몇 번이고 되짚어 말하는 이 권사.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본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해발 4000미터 안데스의 산삼 마카 MACA

한대인들을 위한 고대의 선물! 마카의 신비를 느끼보십시오!

◆ 정력감퇴 해결
◆ 노화방지 및 젊음유지
◆ 불임증에 효과
◆ 여성 호르몬 밸런스 조절
◆ 스트레스 해소
◆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유지
◆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임

※남녀 판매직원채용



월 드 상 사 대표 안 순 복

위치: 만천오기에서 하주골방향, 구)만천당 건너편

춘천시 후평동 733-1 ☎033)252-3439 HP 010-8243-5590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다이어트를 위한 3가지 수칙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심리는 "빨리, 많이 빼자"이다. 이런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의욕을 고취시키지만, 건강에 무리를 주고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 감량한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이다.

비만 환자는 빠른 감량을 원하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을 자칫 간과하며 실패하기 쉽다.

아래의 3수칙을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보라.



하나!
내 몸을 확실히게 알자. 내 몸에 꼭 맞는 다이어트를 해라

1) 현재 내 몸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의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얼마 만에 몇 킬로를 감량했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 몸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의 방법을 선택해야 건강한 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감량이 되지 않았다고 단순히 속상해하면서 포기하기보다는 감량이 안 된 그 이유가 무엇인기를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2)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 최소한 내 몸에 대한 자료는 얻자.

어떤 방식을 선택하던, 체중감량이 잘 되건 혹은 되지 않건 간에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나의 몸이 말해주는 내 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내 몸이 어떠한 패턴의 다이어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제 어떤 양태로 감량되는지, 정체기는 언제 오며,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체기에서 감량기로 이행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요요가 온다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등등의 자신의 몸에 대한 자료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
계획을 짠다. 다이어트는 "마라톤"과 같다.

1) 단기 다이어트의식에서 벗어난다.

"난 이번 달에 6킬로를 빼거야" 라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 감량기간과 유지기간을 나누며 계획한다.

2) 체력을분배하라

한 달 만에 자신이 가진 체력을 완전히 소진하는 프로그램은 실패한다. 장기계획을 짠 다음에는 체력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계획 한다.



셋!
습관을 고친다. 다이어트는 "습관의병"이다.

1) 다이어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잘못된 습관을 리스트업 한다.

삶을 찌게 하는 습관을 식이/운동/생활 등의 카테고리별로 정리한다.

2) 현재의 잘못된 습관을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교정할 것인기를 계획하고 잘못된 습관을 확실히 고쳐나간다.



3)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도 고쳐진 습관의 패턴을 잃어서는 안된다.

습관의 패턴이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체중도 함께 늘어난다(요요현상).

[출처 : http://www.kyurim.com/ 규림한의원 참조.]

예 항

우체통 없는 우체국

미국 피츠버그에서 아주 품행한 최신 설비의 우체국을 건축이었다고 한다. 마침내 수억 원을 들여 공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완공식을 하는 날 주최 측은 어떻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우체국 청사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우체통은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더라는 것이다. 우체통이 없는 우체국은 목적이 상실된 우체국이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교우들의 상태가 우체통 없는 우체국과 같지 아니 한가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을 듣되 말씀의 실천이 없는 교회, 성령을 알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성도. 제일 귀한 보배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강영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 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 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 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 교회
춘천안디옥 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와이신웰 심인섭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겸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포 · 토 · 에 · 세 · 이



'덤'

열 번 백번 죽어도 싼 큰 죄인인데
주님께선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선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가진 것 없어 드릴 것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천삼년 첫날 진태.. (사형수 김진태의 고백)

수감 중인 한 사형수가 600여명의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전주교도소 등에서 12년째 수감 중인 김진태(38)씨.

김씨는 1992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가 전도한 재소자는 10여년 동안 자그만치 600여명. 사형수 신분인 그는 2개월마다 방을 옮겨 다녔고 수많은 재소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김씨는 에배와 성경공부는 물론 재소자들에게 운동화 속옷 등 생활필수품도 지원하고 있다. 자신의 영치금을 쪼개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도 그가 행하는 베품 중 하나다. 운동시간을 빼고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구치소 재소자들은 감방의 형님격인 김씨에게 뜻하지 않은 사랑을 받고 감동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

김씨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94년 6월 신부호 목사(47 · 고시촌선교회 대표)의 전도가 계기가 됐다. 교정 사역을 하는 신 목사가 사형수 신분인 김씨를 찾아가 "비록 당신은 사형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며 복음을 전했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을 기다리던 김씨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됐다. 사형장에서 자신이 메달려야 할 밧줄에 예수님이 메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득방에서 사흘 밤낮을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죄인 때문에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순간 마음의 평안이 몰려왔다. 비들기 같은 평화가 영혼을 감쌌다. 그것은 난생 처음 누리는 안식이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후 그는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주위 교도관과 재소자들에게 고백했다. 많은 등료가 변화됐고 교회에 나가는 재소자들도 부쩍 늘었다. 그는 오로지 전도의 삶만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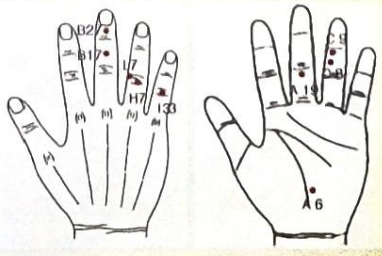
그가 신 목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교도소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나 목사가 제가 생활하는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간증했다. 2002년 12월 31일 그는 신 목사와 천지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에 힘입어 무기수로 감형되는 기쁨을 맛봤으며 '팀안의 전도자'로 불리고 있다.

건강상식

기침의 요혈

봄철 꽃샘추위와 황사가 찾아오는 환절기에는 감기와 기관지염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기침과 가래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 H7 : 소장(小腸)에서 나오는 기침을 다스린다(기침을 하면 탈진되어 기운이 없어진다).
- I33 : 방광(膀胱)에서 나오는 기침을 다스린다(기침을 하면 오줌을 싼다).
- L7 : 삼초(三焦)에서 나오는 기침을 다스린다(기침을 하면 복부가 그득하여 음식이 먹히지 않는다).
- C8,C9 : 기침으로 가래가 많을 때
- A19, A6 : 몸이 바싹 마르고, 천식이 심한 때
- B17 : 기침으로 어깨가 아픈 때
- B27 : 기침하면서 요배(腰背)가 아프면 뜸을 뜬다.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제85회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그림공모전「동감」

1. 주제 「아동 그리고 가족」
2. 참가신청기간 3월 26일 ~ 4월 6일 (전화, 우편, 이메일 신청)
3. 작품접수기간 3월 26일 ~ 4월 13일 (도착분에 한함)
4. 대상: 강원도 내 초등학생
5. 응모요령: 8절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뒤 (자유화) 뒷면에 이름, 주소, 학교, 학년, 반, 연락처를 적어 우편 혹은 내방접수
6. 보낼곳: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685-5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7. 문의처: (033) 244-1391 (홈페이지) www.1391.org (이메일) kwchild@kwf.or.kr

* 입상자 시상식은 5월 4일에 실시할 예정. 이후 일주일간 작품 전시.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춘천 YMCA ▣

♣ 청소년 동아리모집

1. 청소년 디지털카메라 동아리(FLASH)
2. 청소년 독서토론 동아리(질신!)
3.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다솜)
   -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 및 자원봉사
4. 청소년 기독 동아리(제우스)
   - 성경연구 및 찬양

주 1회 모임 및 교육(*세례교인의 참여 가능)

<활동 세부 내용>

1. 시간: 매주 토요일 2시(수업일에는 3시)
2. 대상: 중등1학년 - 고등2학년
3. 장소: 춘천YMCA 회관 내
4. 문의 및 신청: 복지청소년국 이선형 ☎ 255-1008(주중), 010-3013-5868(주말)

▣ 월드비전 ▣

♣ 제18회 파란글 꽃그림잔치 및 등요부르기 예선

1. 일시: 4월 14일(토) 오전10시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대상: 지역 내 초등학생

♣ 운영자문위원회 2차 정기모임

1. 일시: 4월 24일(화) 오후6시
2. 장소: 복지관 1층 회의실
3. 대상: 운영자문위원회
4. 문의: (033) 254-7244

※ 결식아동돕기 제7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1. 기간: 3월 ~ 6월
2. 주최: 강원도민일보 · 춘천MBC · 월드비전강원지부
3.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4. 성금사용처 계획
   1) 강원도내 (100,000,000원) - 강원도내 결식학생(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2) 국내(80,000,000원) 도시락 사업
   3) 해외(150,000,000원) - 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 (현판에 강원도이름명기)
5. 참여방법
   1) 춘천지역은 5월 2일 13:00~16:00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성금모금실시
   2) 성금계좌: 농협 204-01-078120 신한 515-01-038052
   3) 후원문의: 033-912-2004, 3004.

(주)용두애브컴
AUDIO VISUAL COMMUNICATION
이사 김광림

♠방송, 음향, 영상, 무선설비
♠CCTV, CATV, SCREEN
♠LCD PROJECTOR
♠외제스피커, 앰프, 믹서
♠인터엠, 대경바스컴, SOVICO, YAMAHA, 아빅스대리점
♠정보통신공사 면허 업체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가입업체
♠ISO 9001 인증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06 http://www.yongdoo.net
Tel: 033)254-4321 · Fax: 033)257-4321 · HP: 011-368-3588

※ 교회차량 상담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
호반판매대리점
최정용 집사
011-379-1165
(E-mail: cjy1165@yahoo.co.kr)
♡아버지학교와 성시합창단,
그리고 가산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칼 럼



진정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피 종 호 목사
춘천나눔교회

한번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강사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몇 프로나 갈망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나를 비롯해 그 순간 대다수의 목사들이 아마 동일하게 "90%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통계에 의하면 20% 정도의 신자들만이 부흥을 원한다"고 했다. 강의실 분위기는 매우 충격을 받은 듯 술렁거렸다. 나도 그 순간 "정말 우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흥을 갈망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확인해볼 자신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부흥을 갈망한다면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 지기 때문이다. 한번 묻고싶다. 당신은 정말로 부흥을 갈망하는가?

올해의 키워드는 "백주년" "부흥" "성령"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서 보았다. 이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의 재현을 100년을 맞아 재현코자 하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Again 1907"이라는 구호아래 다시 이 땅에 그날의 부흥을 갈망하는 운동이 1월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로렌커닝햄, 루이스부쉬, 피터와그너" 등 세계 기독교의 리더십들과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씀선포와 찬양, 회개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며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춘천에 있는 C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침실에 아파트를 빌려 1주간 휴가를 내서 이 집회에 참여하여 깊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이런 영향력으로 교회가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목회자들과의 모임 중에 들었다. 돌이켜보면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플로 74대회' 때는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보따리 싸들고 100만이상이 여의도에 모여들어서 같이 회개운동과 전도운동을 펼쳤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의 부흥은 폭발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모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도 많이 식어졌음을 여러 연합모임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현실이 정말 걱정된다. 모이지 않는 습관에 익숙한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한국교회의 감소현상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하며 그렇다면 모여서 회개, 말씀, 기도, 교제 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2007 성서한국 동일한국대회가 오는 7월 24일부터 우리 춘천의 강원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기도를 모아야 한다! 진정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만이 춘천과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가 사는 길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학원복음화대회 준비모임
일시: 4월 7일, 14일(토) 오후6시~8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2) 학원복음화 대회
일시: 4월 21일(토), 오후6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강사: 한군 목사(평화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문의: 244-5400, 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세계기도의 날
일시: 4월 24일(화) 장소: 춘천CCC회관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열린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칼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 오후 7~9시 장소: 춘천지부사무실(한신aj 빛은빌)
대상: 기정주부(관심있는 자메님)

3) 직장인예수제자훈련학교 4기
학교진행: 4. 20.-9. 22. 저유기간: 6. 18.~22, 25.~29.
전도여행: 7월 중순 등록비: 15,000원, 회비: 110만원
장소: 일심장로교회(동변 장하리)
시간: 목, 금-저녁 6시 30분~11시 토요일-오후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4) King's Kids
일시: 5월 12일 - 8월 18일 대상: 초등4하년 - 고2(15명)
회비: 35만원(전도여행비 외) 문의: 255-2619
발렌티어 모집: 19세 이상 형제1명, 자매2명

◆IVF

1) 강원지역 간사 연합모임
일시: 4월 11일(수) 장소: 원주

2) 성경연구 워크샵
일시: 4월 23일(월) ~24(화) 장소: 서울 청어람

3) 중보기도 모임 'RUN'
일시: 4월 13일(금) 오후 7시 장소: 춘천IVF회관

4) 학사 방문
일시: 4월 24일(화) ~ 27일(금) 장소: 전국
문의: 252-5200

◆JDM

1. 부활축전
주제: 솔은 사랑찾기 일시: 4월 12일(목) 오후7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2. 지역간사수련회
일시: 4월 17일(화) ~ 20일(금) 장소: 양평에 있는 별장

3. 음악과 강연의 밤(EF복음축제)
일시: 5월 10일(목) 늦은 6시 장소: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프로그램: B-boy, 더쓰레이(뮤지컬 팀), 락음 메시지 등
대상: 춘천지역 청년 대학생들(특히 비그리스도인)

◆어린이전도협회

1) 세소식반 강습회
일시: 3월 5일(월)~ 5월 21일(월) 12주간
낮반: 10시~1시, 밤반: 7시~ 10시
장소: 춘천지회 강의실(범네병원5층 추수홀)

2) 학교 순회 전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1:30~4:00
*봄내3/29 부안4/5 석사4/12 성림4/19 성원4/26 소양5/3
우석5/10 후평5/17 효제5/24 효제5/31 춘천6/7 봉의6/14
동춘천6/21 교동6/28 교대부속7/5 근화7/12 신남7/19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y)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지부간사 회의
일시: 4월 19일(목) ~ 20일(금) 장소: 춘남 대전

2) 워크리프스콜 특강 'MK단기시역'
일시: 4월 23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3) 춘천지부 리트릿
일시: 4월 27일(금) -28일(토) 장소: 인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강사: 김희순 선교사

4) 워크리프스콜 특강 'One Story시역'
일시: 4월 30일(월) 오후7시 장소: 강남온누리교회
강사: Karen 선교사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 (033@gbt.or.kr)

◆교정선교회

"어두움에 빛을,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해주세요
일시: 4월 9일(월) 오후7:00
장소: 교정선교회(후평동 만천탕 건너편)
문의: 033)252-3439, 010-8243-5590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 (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

◆라스베가스 성시화대회
일시: 4월 8일(주일) ~ 14일(토)
장소: 라스베가스 무터란 커뮤니티교회
강사: 김준곤 목사 문의: (02)2016-7337

◆ 춘천기독교연합회

1) 춘천사랑 십자가대행진
일시: 4월 6일(금) 오후7시 장소: 공지천 삼천동 시민공원
행진: 삼천동 시민공원 →중앙로→도청 →봉의산 시민공원

2) 2007년 부활주일 연합예배
일시: 4월 8일(주일) 새벽5:00 장소: 춘천시청
문의: 256-1260~1



교육인적자원부등록 사외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재 한국 평생교육원

21C 무한 경쟁시대에 인재를 찾고, 기르고, 배출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각기 다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묻어두고, 사정시켜 무엇기에 자기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등판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과정명	요일	강의시간	정원	입학자격	특전	총수업
노인(케어)복지사	월	오후 6시~9시	25	건강한 남/여	수료후 자격증 취득	72시간
요양(간병)관리사	화		20	학력제한 없음		
심리상담사	목	오후 6시~9시	20	고졸이상, 상담전문가로 활동하실 이	수료후 자격증 취득	90시간
장례지도사	금	오후 6시	30	장례업무 전반 관심 갖고 활동할 이, 홈페지도사	수료후 자격증 취득	90시간

* 모든 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과 강사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정원의 70%에 미달될 경우 그 과정이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반분야 모집안내

과정명	정원	요일	수업시간	강 사	특 전	총수업
강원미인드 리더쉽 개발	20	월	오후 6시~8시	김남현 박사 (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1, 2, 3단계)	20시간
독서인재 개발교실 (이기적이)	30	화	오후 7시~10시	최승만 교수 (춘천교대 교육학과) 최성환 교수 (아기유아 인재개발원)	수료후 등급별 자격증 취득	초급 24시간 중급 36시간 총 60시간
레크레이션 교실	20	금	오후 6시~8시	최진환 교수 (한 강원 레크레이션 협회장)	수료후 등급별 자격증 취득	20시간
음악교실 (작곡, 피아, 성악, 작품악기 등)	전공별 학기제	요일 조정 가능	시간 조정 가능	김정예 교수 박영식 교수 박병훈 교수 외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	과정별 시간 다름
성전꽃꽂이	15	토	오후 3시	양금한 교수 (숙명여대 춘천지회장)	과정별 단계별 수료증 발급 및 자격증 취득 초급, 중급, 고급, 사범반	과정별 시간 다름
동양꽃꽂이	15	토	오후 4시30분			

● 구비서류: 본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사진4매(3×4)
● 모집기간: 2007년 3월 22일 ~ 2007년 4월 13일까지(오전10시 ~ 오후6시)
● 개강월시: 2007년 4월 16일 ~ 20일 사이 과정별로
●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8802, 241-9939
H.P:019-389-3657, 011-372-9100

■ 사랑의 위문금 전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지회장:박인관목사)는 지난 2월 25일 오후3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순회헌신예배를 시작으로 FTX 훈련 위문금 모금에 나섰다. 이후 모금된 위문금 240만원을 3월 8일 강원지회 총무 박태원목사가 2군단 군종참모 중령 최부식목사에게 전달하였다. 후원교회 : ▶제일장로교회(박성호목사) 74만원 ▶시청직장선교회 50만원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 50만원 ▶춘천광염감리교회(박인관목사) 20만원 ▶광장감리교회(원기배목사) 20만원 ▶선진교회(92정비대대) 15만원 ▶평화군인교회(52전략대대) 11만원

■ YMCA 한국폴리텍III대학과 업무협약



춘천YMCA는 3월 7일(수) 한국폴리텍III대학 회의실에서 염시환학장과 학교관계자 및 춘천YMCA 신덕진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폴리텍III대학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을 통해 두기관은 앞으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동추진,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교육훈련활동 및 인적교류활동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아동학대 사례발표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홍칭표)은 3월 28일(수) 오후2시 기관 강당에서 사례의 효과적인 개입 논의를 위한 '제9회 case 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학대 피해아동의 사례개입과정'을 주제로 ONE-STOP지원센터 안순오팀장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고주에 총괄팀장이 사례개입과정을 발표하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본 기관은 오후7시 한미정에서 사례판정위원회의를 실시하였다. 의료, 법률, 교육, 행정,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관별,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진행과정 및 결과자료를 자문 받았다.

십자가 대행진 준비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 십자가 대행진 준비위원회(위원장:한균목사)는 4월 6일(금)에 실시되는 '춘천사랑 십자가 평화대행진'과 4월 8일(주일) '2007 부활주일 연합예배'의 준비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연합회 사무실과 평화교회에서 실무협의 및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 3월 30일(금) 오후 10시 평화교회에서는 십자가 대행진 준비를 위한 연합철야기도회를 실시하였다.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장 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장이 · 취임식이 3월 10일(토) 오전 11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호상장로가 이임하고 이영규장로가 제14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영규장로는 석사교회에서 17년간 장로로 섬기면서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과 동부연회남선교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미련하고 심김의 본이 되는 남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새 임원진은 총무 강원주장로(원주명륜교회) · 감사 이윤종장로(원주명륜교회) · 김의권장로(춘천중앙교회)가 각각 선임됐다.

교역자연합회 월례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한균목사) 월례회가 3월 26일(수) 오전11시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교역자 서로 돕기 실행 및 활성화 방안, 교역자 부부축제, 전반기 교역자부부 수양회 등에 대해 토의하고, 추후 5월 월례회는 교역자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하였다.

■ 바람의 딸 한비야 춘천에 오다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등 세계오지를 여행하며 얻은 경험담을 쓴 자서전으로 유명한 월드비전 긴급구호 한비야팀장이 3월 16일(금) 오후 6시 춘천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강연을 하였다. 한팀장은 "미리에 세계지도를 그리자.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한 손은 자신을 위해 한 손은 남을 위해 살자"고 그녀의 열정을 나누었다. 이날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감독은 한비야 팀장에게 월드비전 잠비아 우물지원사업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 춘천기아대책기구 이사회



한국기아대책기구 춘천지역회 지회장 원종목사는 3월 27일(화) 오전11시 제일감리교회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춘천지역회 현황 및 사업보고와 UN의 H천교사의 사역보고 시간을 가지고, UN의 후원이 사회조직과 5월중 현지 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 집 위 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신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